

대한간호 100호 발간에 즈음하여



회장 김 모 임

대한간호는 1925년 조선간호부 회보로 시작하여 백백년을 보내고 100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음을 생각할 때 감회가 서럽습니다. 지금은 격월간으로 출판이 되는 대한간호가 오늘에야 100호를 맞는 것은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역사를 대변해 주는 듯 합니다.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국·영문 혼용판으로 시작되어 한글전용의 기관지로 변모하면서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 여성의 역사의 일편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존하여 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없이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1926년 “조선간호부 회보”에 나타난 회보발간의 목적을 여러분과 함께 재고해 보고자 합니다.

- 1) 환자를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간호할만한 지능과 열성을 증진케 할 것.
- 2) 일반민중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피할 수 잇스며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위생학의 가능성을 표명할 것.
- 3) 우리의 사업을 장려하며 고상한 리상을 가지고 그 리상을 향하여 전진할 것.
- 4)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과 최고의 봉사를 드릴 것.
- 5) 원더하고 긴요한 기회를 일허바리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50년 후인 오늘날에도 대한간호를 발행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간호가 환자간호의 질적 향상에 큰 몫을 할 수 있기 바라며, 대한간호를 통해 건강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여 아울러 국민을 위한 참다운 간호로 발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간헐신보 기관지가 발간 됨에 따라 대한간호는 소식(News)을 전달하는 매개지에서서 전인간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간호원 품성을 도야하고 전문지식을 얻는 전문인의 학문적 윤리적 도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책은 내는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원이 읽고 활용함으로써 비로서 의미를 가지며, 책을 엮기까지 흘린 땀과 시간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영적 지적 반력자가 되어 사랑을 받는 冊이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979년은 재정적 사정으로 인하여 작년까지는 100여 페이지의 대한간호가 70페이지로 축소하는 실정이나 100호를 기념하는 마당에서 바라는 것은 월간으로 출간되고 내용도 충실한 우리의 전문잡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간호 100호를 기념하기 위하여, 올해 본협회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잡 간프 실천운동”을 위한 특별호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 성장과 발자취를 재경 전 출판위원장으로 부터 들어 봅니다. 이번 100호에서 다시 다음 100호가 발간될 때 자랑스러운 우리얼굴로 성장한 대한간호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온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